

○ 주요 기사

(고용/노사) 5건

조선	삼성웰스토리,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 ... 삼성그룹서 처음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연장해달라 요청
한경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양대 노총 중심 노동계 구도 흔들리나
	보건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하려면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중앙	고용 노사	제목	삼성웰스토리,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 ... 삼성그룹서 처음 A12면
		내용	삼성그룹에는 올 들어 삼성엔지니어링·에스원·삼성웰스토리 3개사에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웰스토리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적어 기존 인력 관리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제목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연장해달라 요청 B4면
		내용	SPC는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점주의 3분의 1은 이번 논란을 겪으며 ‘결국 빵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되면 제빵사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	고용 노사	제목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A1면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득권 노조의 반발 해소가 관건”이라고 했다.
		제목	양대 노총 중심 노동계 구도 흔들리나 A4면
		내용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도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직무급제는 아예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저항이 더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체계표준안 발표를 앞두고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제목	보건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하려면 A34면
		내용	최근 5년간의 전 세계 동향에 비춰 볼 때 보건산업은 고용을 동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보건산업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등 ‘고용을 동반하는 고성장’의 저력을 보여줬다.